7번 도전 끝에 영예…국민배우 넘어 세계 스타 반열에

칸 영화제 남우주연상 송강호

고레에다 히로카즈 '브로커'서 열연
누적 관객 1억명…브래드 피트 "나도 팬"
1991년 연극으로 배우생활 시작
인생작 '넘버3'서 조폭 두목 연기

제75회 칸국제영화제 경쟁부문 진출작 '브로커' 공식 상영회에 도착, 레드카펫에 올라 포즈를 취하는 배우 송강호. /연합뉴스

송강호가 칸국제영화제에서 최고 연기상을 받으며 한국의 '국민배우'를 넘어 세계적 스타 반열에 올라섰다.

28일(현지시간)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브로커'로 남우주연상을 받은 송강호는 칸영화제 7번째 도전 만에 최고 배우 자리에 섰다.

한국 배우의 칸영화제 연기상 수상은 2007년 이창동 감독의 영화 '밀양'으로 여우주연상을 받은 전도연에 이어 두 번째다. 아시아 배우가 남우주연상을 받은 것은 2000년 홍콩의 량차오웨이(양조위·'화양연화'), 2004년 일본의 야기라 유야('아무도 모른다') 다음으로 세 번째다.

송강호는 올해 칸영화제 시작 전부터 강력한 남우주연상 수상 후보 중 한 명으로 꼽혀왔다. '괴물'(감독 주간), '밀양'(경쟁부문),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비경쟁부문), '박쥐'(경쟁부문), '기생충'(경쟁부문), '비상선언'(비경쟁부문)으로 이미 여섯 차례나 칸 무대를 밟은 바 있다.

특히 2019년 '기생충' 당시에는 심사위원장 알레한드로 이냐리투가 송강호를 강력한 남우주연상 후보로 꼽았으나 황금종려상과 남우주연상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영화제 원칙에 따라 수상이 불발된 사실이 알려졌다.

송강호에게 남우주연상을 안긴 '브로커'는 교회 베이비 박스에 버려진 한 아기를 통해 만난 사람들이 하나의 가족이 되어가는 이야기다. 여러 차례 비혈연 관계의 가족을 소재로 영화를 만들어 온 고레에다 감독의 색깔이 묻어나는 작품이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은 함께 일하고 싶은 한국 배우로 예전부터 송강호를 꼽았다. 자신의 첫 한국영화인 이번 작품에서 아이가 필요한 부부에게 버려진 아기들을 판매하는 브로커 상현 역으로 송강호를 캐스팅했다.

1991년 극단 연우무대에 입단해 배우 생활을 시작한 송강호는 연극 '동승', '여성반란', '지젤', '비언소' 등 무대에 올랐다. 그의 연기를 인상 깊게 본 이창동 감독이 영화 '초록물고기'(1997)의 깡패 판수 역을 맡기면서 본격적으로 영화계에 발을 들여놓았다.

특히 '넘버 3'(1997)에서는 불사파 두목 조필로 등장해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오늘의 송강호를 만든 계기가 됐다. 그해 대종상영화제 신인남우상, 청룡영화제 남우조연상을 받으며 주목받는 배우로 부상했다.

이어 '쉬리'(1999), '공동경비구역 JSA'(2000), '살인의 추억'(2003) 등 작품성과 흥행을 모두 잡은 작품에 잇따라 출연했다. 코믹함과 진중함을 오가는 특유의 연기로 호평받으며 '믿고 보는 배우' 대표 사례가 됐다.

이후에도 '괴물'(2006), '밀양'(2007),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2008), '박쥐'(2009), '설국열차'(2013), '관상'(2013), '변호인'(2013), '밀정'(2016), '택시 운전사'(2017) 등 히트작이 이어졌다.

2019년에는 '기생충'이 칸영화제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의 영예를 안으면서 아시아 배우 최초로 로카르노 국제영화제에서 '액설런스 어워드'를 수상했다. LA 비평가협회상 남우조연상, 미국영화배우조합(SAG) 앙상블상도 받았다. 2020년에는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선정한 '21세기 최고 배우 25인'에 뽑히기도 했다.

40여 편의 영화에 출연해온 송강호는 깡패, 군인, 형사, 시골 노총각, 신부, 국정원 요원, 변호사, 왕, 택시 운전사 등 다양한 역할을 연기해왔다.

걸음걸이와 몸놀림 등 섬세한 표현으로 캐릭터의 특성을 예리하게 담아내면서 자신만의 색을 입힌 '송강호 표 연기'를 선보여 온 그는 이창동, 박찬욱, 봉준호 등 세계적 감독들과 여러 작품에서 호흡을 맞췄다.

특히 봉준호 감독과는 사이가 각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봉 감독은 '기생충'이 황금종려상을 받을 당시 송강호를 '위대한 배우'라 칭하며 "그가 없었다면 한 장면도 찍지 못할 영화였다"고 공을 돌렸다. 박찬욱 감독도 송강호를 '한국 배우 중 가장 감독적인 시각을 가진 배우'라고 극찬한 바 있다. /연합뉴스

'JSA'·'박쥐'…영화광·철학도에서 세계적 거장 우뚝

박찬욱 감독이 28일 제75회 칸국제영화제 시상식에서 '헤어질 결심'으로 감독상을 받은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칸 영화제 감독상 박찬욱 작품세계

관객 583만명 'JSA'로 이름 알려
'친절한 금자씨' 베니스영화제 진출
2009년 '박쥐' 칸 영화제 심사위원상

박 감독은 열렬한 영화광으로서 독특한 작품세계를 구축해 온 한국의 대표 감독이다. 작가영화·장르영화·B급영화·컬트영화 등 비상업 영화에 끊임없는 애정을 드러내며 사회적 금기를 건드리고 파격적 형식을 추구했다.

유려한 영상미는 박 감독의 트레이드 마크이자 그의 영화에 예술적 가치를 부여하는 핵심 요소다. 특히 칸을 비롯한 유럽 평단은 원죄와 구원이라는 서구적 테마를 완성도 높은 미장센으로 스크린에 옮기는 그의 작업 방식에 주목해왔다.

1963년 8월 23일 서울에서 태어난 박 감독은 영화를 좋아하는 어머니의 영향 아래 성장했다. 1982년 서강대 철학과에 입학한 뒤 교내 동아리에서 영화에 대한 지식을 쌓았다.

25살 때인 1988년 유영진 감독의 영화 '깜동'에 연출부 막내로 참여하면서 본격적으로 영화계에 뛰어들었다. 1992년 직접 시나리오를 쓴 영화 '달은 해가 꾸는 꿈'으로 연출 데뷔를 했다. 가수 이승철이 주연으로 나오는 이 영화는 소수의 호평을 받았으나 흥행에는 실패했다.

두번째 영화 '삼인조'(1997)를 연출하기까지 5년이 걸렸다. 그 사이 그는 평론가로 활동하며 평론집 '영화보기의 은밀한 매력-비디오드롬'(1994)을 냈다.

'삼인조'는 두 남자와 한 여자가 3인조를 이뤄 강도짓을 한다는 내용이다. 김민종과 이경영·정선경이 주연을 맡았다. 박 감독의 독창성이 돋보이는 영화였으나 역시 흥행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다.

본격적으로 대중에 이름을 알린 출세작은 2000년 개봉한 '공동경비구역 JSA'다. 이 영화는 관객 583만명을 동원해 그해 최고 흥행작이 됐다. 재미와 완성도를 모두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고, 베를린국제영화제 경쟁부문에 초청돼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박 감독은 흥행으로 입지가 탄탄해지자 자신의 기호를 유감없이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때 나온 영화가 신하균·배두나·송강호 주연의 하드보일드 누아르 '복수는 나의 것'(2002)이다. 이 영화는 나중에 폭력과 구원이라는 주제로 엮이는 '복수 3부작'의 첫 작품이 된다.

박 감독은 그러나 자신의 스타일을 계속 밀고 나가 '올드보이'(2003)를 연출했다. 이 영화로 2004년 칸영화제에서 심사위원대상을 받아 한국을 대표하는 감독으로 떠올랐다.

그는 이즈음 자신의 작품세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정서경 작가를 만났다. 정 작가는 '친절한 금자씨'(2005)를 시작으로 신작 '헤어질 결심'까지 박 감독의 대부분 작품에서 각본을 함께 썼다. '헤어질 결심'은 박 감독이 영국에서 드라마를 촬영할 당시 정 작가와 나눈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영화다.

박 감독은 2004년에는 한·중·일 3국 옴니버스 프로젝트인 '쓰리-몬스터'의 연출에 참여해 향후 '박쥐'를 예견하게 하는 '컷'을 만들었다. 이듬해 '올드보이'에 이어 복수 3부작을 마무리 짓는 '친절한 금자씨'로 제62회 베니스영화제 경쟁부문에 진출했다.

2009년작 '박쥐'는 박 감독을 '거장'으로 자리잡게 한 영화다. 송강호와 김옥빈을 기용해 흡혈귀가 된 신부라는 파격적 이야기를 그렸다. 박 감독은 이 영화로 칸영화제에서 심사위원상을 받아 2회 수상 기록을 세웠다.

박 감독은 2016년작 '아가씨'에서 특유의 영상미를 최대치에 가깝게 끌어올렸다. 사라 워터스의 소설 '핑거스미스'가 원작이지만, 배경을 일제강점기 조선으로 옮기고 조선과 일본·유럽의 이질적 문화를 스크린에 혼합했다. /연합뉴스

작은 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 062.220-0551

(주)아이기스 화진화장품
광주시 동구 금남로 203, 지산빌딩 2층
안마의자, 식품화장품, 마시지, 기계 개발
☎ 062)223-0177, 010-3642-7320

(주)대신수산유통
광주시 동구 제봉로 194번길 14
각종 수산물 무역/유통
☎ 062)233-0067, 010-3634-7264

(주)쓰리에이치 광주대인센터
광주시 동구 구성로 215, 4층
온열, 지압, 뜸, 마사지 가능
의료기·발명·특허·우수조달물품
☎ 062)573-3112, 010-8221-3119

문화결혼상담소
북구 북동 242-4번지
초혼·재혼 상담
작명, 궁합, 풍수지리
☎ 062)529-0315, 010-3606-5632

꽃게랑 약선반찬 전집
광주 북구 운암1동 황계로 27-1
간장게장, 양념게장, 모듬전, 김치류전문
제사음식, 반찬메뉴, 홍어무침, 추어탕
오리탕, 나물종류 등 사전예약 가능
☎ 010-2315-2058

금남로 사주 카페
금남로 4가 50번지(원각사 바로 옆)
궁합, 신수, 작명, 운수 판단
☎ 010-7495-1577

성수동꿀꽈배기 나주영산포점
전남 나주시 예향로3778, 영산포5일시장 건너편
꿀꽈배기2개 1000원, 옛날핫도그1개 1000원
치즈핫도그1개 1500원. 찹쌀도너스2개 1000원
팥도너스1개 1000원, 흑임자도너스1개 1000원
☎ 061)337-7987, 010-7732-6955

면 쟁 이
동구 산수동 518-14, 광주은행 산수지점 건너편 위
다양한 각종 면요리와 생과일주스
75세이상 어르신과 급식카드 고객 50%할인판매
우동모밀, 죽 등 다양한 면요리 전문점
☎ 010-5459-9664

법무사 황영수 사무소
광주시 동구 지산로78번길 13, 검찰청담벼락밑
소송, 민사집행, 민사신청, 공탁, 가사, 부동산등기
상업등기 각종 법률무료상담
☎ 062)226-9966, 010-3002-0816

석 당 화 랑
동구 궁동 예술의 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 062)222-3118

동 양 철 학 원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식당 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 함.
☎ 062)224-7687, 010-2611-7687

필 스 제 화
동구 산수동 553-73(산수5거리 옛굴다리쪽)
구두수선 남화·여화창 굽갈이
가방지퍼수선·염색·광택
☎ 010-4755-9294

인철(仁喆)익스프레스
북구 신안동 764-10번지
포장·일반이사, 화물운송
"저층에서 고층사다리 보유"
☎ 062)572-2323, 010-9509-4422

무크 광주세정점
광주시 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1층 151호
심플하고 엣지있는 스타일의 가을신상품 출시
남·여화 20~40% 세일
(일부 품목은 제외)
☎ 062)370-9151

작곡가김기범노래교실
광주 동구 계림동 331-4
(계림동로타리 옛 계림오거리입구 3층)
전자올겐으로 직접 연주, 개인지도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 방음 완비
☎ 062-225-4445, 010-3603-3064

초 대 화 랑
동구 궁동54-2번지(예술의 거리)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 062)222-2516

고 전 방
동구 궁동 34-4(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 062)224-4869

남도철학원
북구 천변우로79번길 87(임동)
수강생 수시모집! 사주, 작명, 출산, 택일
명리비전으로 수강생 개인 지도
☎ 062)522-9653, 010-8645-2254

송가네 반찬
광주시 남구 백운로 99번길 2
각종 반찬 주문
☎ 062)672-9809, 062)672-6376

다홍치마 한정식 전문
광주시 북구 독립로 251
한정식, 고등어구이, 주물럭, 쌈밥, 갈치구이
☎ 062)233-9952, 010-4469-0360

한 국 기 원
광주 북구 운암동 450-17
(운암시장 앞 한국회관 3층)
바둑 원장개인지도,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
넓고 깨끗한 환경
☎ 010-8610-8373

박 당 화 랑
동구 궁동 51-18번지(예술의 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 062)222-6866